
Budd-Chiari 증후군의 초음파 검사적 유용성에 대한 고찰

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

지현자, 김연민, 한정환, 박원식

목 적 : Budd-Chiari Syndorme(B-C-S)은 간정맥의 폐쇄로 인하여 문맥압 항진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흔히 만성 간염으로 오인되기 쉽고, 만성적인 형태에서는 점진적인 간종대, 복수, 식도정맥류 출혈 등을 야기하는 질환이다. 이에 다른 영상검사와 초음파적 특징을 비교하므로써, Budd-Chiari Syndorme의 초음파적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본원을 내원하여 Budd-Chiari Syndorme으로 확인된 환자 중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32명(평균나이 : 51, 남자 : 16, 여자 : 16)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CT 검사의 특징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.

결 과 : 만성간염과 달리 Budd-Chiari Syndorme은 초음파상에서 미상엽 증대(caudate lobe enlarge), 간정맥의 비정상(hepatic vein abnormality), 간내 부수혈관발생(Intrahepatic collateral vessels), 하대정맥의 압박(IVC compression)을 보였다. Budd-Chiari Syndorme의 진단은 CT 47%, 초음파 50%, 기타 3%를 보여 비슷했으나, 주기적 검사의 적용은 초음파 43%, CT 13% 이었고 CT와 초음파의 검사적용을 다 하는 경우는 38%를 보여 초음파 검사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결 론 : Budd-Chiari Syndorme의 초음파적 특징을 이해하고 올바른 검사를 할 경우 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어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또한,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간정맥이나 하대정맥 폐쇄 및 간내 부수혈관(Intrahepatic collateral vessels)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고, CT검사에 비해 비침습적이며 조영제 부작용이 없는 장점과 더불어 특히, 칼라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는 하대정맥 및 간정맥 등 혈류 개통성과 방향성을 찾는데 다른 검사에 비해 탁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에 Budd-Chiari Syndorme을 진단 및 추적검사에 있어 초음파 검사가 아주 유용하다고 사료된다.